

현대중국어 ‘A着VP’구조에 대한 통사분석

양 영 매*

<目次>

I. 들어가며	IV. ‘A着VP’구조의 동사구
II. ‘A着VP’구조의 유형	V. 나오며
III. ‘A着VP’구조의 형용사	

I. 들어가며

본고는 현대중국어 ‘A着VP’구조에 대한 통사분석을 목적으로 한다. 현대중국어에서 일부 형용사는 동태조사 ‘着’을 수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동태조사 ‘着’을 수반한 형용사구 ‘A着’가 다시 동사구와 결합하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¹⁾

- (1) 李寧春當即氣憤地把錢還給他, 那位領導紅着臉慌忙離去。
(리닝춘이 즉각 분개하면서 돈을 그에게 돌려주자 그 상사는 얼굴이 빨개져서는 황급히 떠났다.)
- (2) 那個姓賴的挪了一下身子, 歪着頭朝我上下打量起來。
(그 라이씨 성을 가진 사람은 몸을 좀 옮기더니 머리를 가웃하고 나를 위아래로 훑어보기 시작했다.)

*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육대학원 중국어교육전공 조교수

1) 본고의 예문은 北京大學語料庫(岡絡版)와 中央研究院平衡語料庫 및 語料庫在線에서 인용했다.

(3) 別吵, 我正忙着做作業呢。

(떠들지 마, 나 지금 숙제하느라 바빠.)

(4) 下星期一就要演出了, 咱們得緊着練。

(다음 주 월요일이면 곧 공연하니까 우리 서둘러 연습을 해야 되.)

예문(1-2)는 서술어부분이 동태조사 ‘着’를 수반한 형용사구 ‘A着’ 뒤에 목적어가 출현하고 이 ‘A着O’가 다시 동사구와 결합하여 ‘A着O+VP’형식을 이룬 경우이고, 예문(3-4)는 서술어부분이 동태조사 ‘着’를 수반한 형용사구 ‘A着’ 뒤에 바로 동사구가 출현하여 ‘A着+VP’형식을 이룬 경우이다. 예문(1-2)는 예문(3-4)에 비해 선행하는 형용사구 ‘A着’ 뒤에 목적어가 더 출현했으나 본고는 논의의 편의를 위해 형용사구 ‘A着’ 뒤에 목적어가 출현하는지 여부를 떠나 동태조사 ‘着’을 수반한 형용사구 뒤에 동사구가 출현하는 구조를 ‘A着VP’구조라고 부르기로 한다.

형용사 뒤에 동태조사 ‘着’가 출현하거나, 형용사가 목적어를 수반하는 현상에 대한 연구는 이미 많이 이루어졌다. 그동안 동태조사는 동사의 전유물로만 여겨져 왔기 때문에 형용사 뒤에 동태조사가 출현하는 것은 특수한 현상으로 비추어졌고 많은 학자들의 관심을 불러일으켰던 것이다. 또한, 목적어 출현 여부는 동사와 형용사를 구분하는 중요한 기준이 되어 왔기 때문에²⁾ 형용사가 목적어를 수반하는 경우 역시 일종의 특수한 현상으로 간주되었고 학자들의 주목을 받게 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형용사가 동태조사 ‘着’를 수반하고 그 뒤에 바로 동사구가 출현하는 ‘A着VP’구조에 대한 연구는 매우 드물다. 金忠實(1998)는 ‘형용사+着’구조에 대한 통사, 의미 특징을 고찰하였는데 그는 ‘A着VP’구조를 ‘형용사+着’구조의 여러 유형 중의 한 유형으로 보았으며 연동문으로 간주했다. 그는 ‘A着VP’구조의 동사구는 ‘동사+목적어’로 이루어졌으며 이 구조

2) 朱德熙는 “무릇 ‘很’의 수식을 받지만 목적어를 가질 수 없는 謂詞는 형용사이다.”라고 하였다. 朱德熙, 《語法講義》, 商務印書館, 2005(1982), 55쪽. 이후 중국 현대중국어에서는 형용사가 목적어를 가질 수 없다는 것을 형용사와 동사를 구분하는 하나의 기준으로 삼고 있다.

에 출현하는 동사는 구체적인 동작동사이며 부가성분이 있어야 한다고 했다. 그리고 龔晨(2009)은 ‘형용사+동태조사’구조를 연구한 학위논문에서, 賀民(2009)은 ‘일음절 형용사+着’구조를 연구한 학위논문에서 ‘A着VP’구조를 언급했고, 張百頌(2009)은 ‘A着’구조의 형용사를 연구한 논문에서, 周曉靜(2012)은 ‘A+着’구조의 통사의미특징을 연구한 논문에서 ‘A着VP’구조를 언급했다. 다시 말해, 이들도 金忠實(1998)와 마찬가지로 ‘A着’구조를 主 연구대상으로 삼았던 관계로 ‘A着VP’구조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언급만 하고 깊이 있는 연구는 하지 않았다.

현대중국어에서 ‘A着VP’구조가 자주 사용되고 있지만, ‘A着VP’구조에는 어떤 형용사가 출현할 수 있으며, 이 구조의 동사구는 어떤 통사적, 의미적 특징이 있는지, 또 ‘A着VP’구조를 어떻게 분석해야 하는지, ‘A着VP’구조의 분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로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등 ‘A着VP’구조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에 본고는 ‘A着VP’구조에 대한 의미 분석³⁾에 앞서 먼저 ‘A着VP’구조에 대한 통사 분석을 통해 ‘A着VP’구조의 유형, ‘A着VP’구조에 출현하는 형용사 및 동사구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II. ‘A着VP’구조의 유형

‘A着VP’구조에 대한 기존 연구는 매우 드문데다가 ‘A着VP’구조의 성질에 관하여서는 그마저도 異見을 보이고 있다. 金忠實(1998)와 張百頌(2009)은 ‘A着VP’구조를 연동문의 일종으로 간주했고, 龔晨(2009)⁴⁾, 賀民(2009)⁵⁾, 周曉靜(2012)⁶⁾은 ‘A着’를 ‘VP’의 부사어로 보아 ‘A着VP’구조를

3) 편폭의 제한으로 ‘A着VP’구조에 대한 의미분석은 후속논문에서 다루고자 한다.

4) 龔晨은 ‘형용사+동태조사’구조를 연구하면서 ‘A着VP’구조를 언급했는데 그는 ‘A着V’의 경우 ‘A着’는 방식을 나타내는 부사어로 쓰였고, ‘A着V+O’의 경우 ‘A着’는 상태를 나타내는 부사어로 쓰였다고 했다. 龔晨, <“形容詞+動態助詞”結構初探>, 山東大學 碩士學位論文, 2009, 40-41쪽 참조.

수식구조(偏正結構)로 간주했다. 그러나 본고는 이들의 이러한 논의는 ‘A着’의 연구에서 언급된 것으로 ‘A着VP’구조에 대한 전문적이고 심도 있는 연구의 결과가 아니므로 재고의 여지가 있다고 본다.

예문(1-4)를 통해 ‘A着VP’구조는 통사적으로 형용사구 ‘A着’ 뒤에 목적어가 출현하는지 여부에 따라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 장에서는 목적어 출현여부에 따라 ‘A着VP’구조를 ‘A着+VP’형식과 ‘A着O+VP’형식으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1. ‘A着+VP’형식

‘A着+VP’형식은 통사상 동태조사 ‘着’을 수반한 형용사구 ‘A着’가 바로 동사구와 결합하는 형태이다. 본고의 고찰에 따르면 ‘A着+VP’형식에서 ‘A着’와 ‘VP’는 연동관계나 수식관계를 나타내는 경우도 있고 술목관계를 나타내는 경우도 있다.

먼저 ‘A着+VP’형식이 연동관계를 나타내는 경우를 보자.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5) 由於主管單位分配下來的項目不多, “僧多粥少”, 許多人閑着沒活幹。

(주관 부서에서 배정한 프로젝트가 많지 않아서 일손은 많은데 일이 적은 상황이어서 많은 사람들이 할 일이 없어 한가했다.)

(6) 一方是爲一分一厘地下力出汗, 一方却把幾十畝地荒着不種, 再發展下

5) 賀民은 ‘일음절 형용사+着’구조를 연구하면서 ‘A着’가 어떤 문장성분으로 쓰이는지를 고찰하였는데 일음절 형용사가 단독으로 부사어로 쓰일 경우 많은 제한을 받지만 동태조사 ‘着’를 수반할 경우 훨씬 자유롭게 동사의 부사어로 쓰일 수 있다고 했다. 그는 ‘A着VP’구조에서 ‘A着’는 ‘VP’의 방식이나 상태를 나타낸다고 했다. 賀民, <<“A單+着”結構句法語義功能研究>>, 上海師範大學碩士學位論文, 2009, 20-21쪽 참조.

6) 周曉靜(2012:146)은 ‘A+着’의 통사기능을 고찰하면서 ‘A着VP’구조를 언급했는데 ‘A着’는 ‘VP’의 상태를 나타내는 부사어로 간주했다. 周曉靜, <<“A+着”結構的句法語義特徵>>, <<現代語文>>第7卷, 2012, 146쪽 참조.

去這責任我就擔不起了!

(한쪽은 손바닥만 한 땅이라도 땀을 흘리며 힘을 쏟고 있는데 한쪽은 오히려 수십 평 땅인데도 묵혀두고 심지 않아서 계속 두다가는 그 책임을 지는 질수 없을 것 같습니다.)

(7) 馬威慌着跑出來, 還沒說話, 那個巡警向他一點頭。

(마웨이는 당황해하면서 뛰어나왔다. 아직 말을 하지도 않았는데 그 순경은 그에게 고개를 끄덕였다.)

예문(5-6)은 'A着' 뒤에 부정형식의 'VP'가 출현했다. 예문(5)에서 서술어는 긍정형식의 '閑着'와 부정형식의 동사구 '沒活幹'로 이루어졌는데 할 일이 없기 때문에 한가한 것이므로 이 문장에서 '閑着'와 '沒活幹'은 원인관계를 나타내며, 'A着'와 'VP'는 연동문을 이룬다. 예문(6)도 마찬가지로 경우인데, 서술어는 '땅을 묵혀두다'는 뜻의 긍정형식 '荒着'와 '곡식을 심지 않는다'는 뜻의 부정형식 '不種'으로 이루어졌고 이 문장은 곡식을 심지 않아서 땅을 묵혀둔다는 뜻을 나타내므로 이 문장에서 '荒着'와 '不種'은 원인관계를 나타내는 연동문을 이룬다. 반면, 예문(7)에서는 서술어가 '당황하다'는 뜻의 '慌着'는 긍정형식과 '뛰어나오다'는 뜻의 긍정형식 '跑出來'로 이루어졌는데, 당황해서 뛰어나온 것이므로 이 문장에서 '慌着'와 '跑出來'는 원인관계를 나타내며 'A着'와 'VP'는 연동문을 이룬다. 연동문의 정의(7)에 따르면 예문(5-7)에서 'A着'와 'VP'는 모두 원인관계를 나타내므로 이 예문들의 경우 모두 'A着VP'는 모두 연동식(連動式)⁸⁾으로 간주해야 한다.

7) 현대중국어에서 연동문(連動句)이란 일반적으로 두 개 혹은 두 개 이상의 동사나 동사구가 연이어 사용되어 전체 문장의 서술어로 쓰이는 문장을 가리킨다. 연동문에서 연용되는 동사구들은 동일 주어를 가지며 중간에 연결어나 휴지가 없어야 하며 의미상 연합관계가 아닌, 동시, 선후, 원인, 방식, 목적, 보충 등의 의미관계를 나타내야 한다. 沈開木, <連動及其歸屬>, 《漢語學習》第5期, 1986, 19-21쪽 참조.

8) 일반적으로 연동문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만, 본고에서는 구(短語)인 'A着VP' 구조를 고찰대상으로 삼았으므로 하위분류에서는 연동식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로 한다.

다음으로 ‘A着+VP’형식이 수식관계를 나타내는 경우를 보자. 이 경우 ‘A着’는 ‘VP’를 수식하는 부사어의 역할을 한다. 즉 ‘A着’와 ‘VP’는 동등한 지위가 아니라는 뜻이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 (8) 湯勺通常橫着擺放在餐盤上方的。
 (국자는 일반적으로 쟁반 위에 가로 놓는다.)
- (9) 鴨肝也能生着吃?
 (오리 간도 날것으로 먹을 수 있어요?)
- (10) 在穩增長的彈藥是充足的, 但必須緊着用。
 (안정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탄약은 충족하지만 반드시 아껴서 써야 한다.)

예문(8)에서 형용사구 ‘橫着’는 국자를 그릇 위에 놓는 방식을 가리키므로 이 문장에서 ‘橫着’는 동사 ‘擺放’의 부사어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문장에서 ‘A着’와 ‘VP’는 수식관계를 나타낸다. 예문(9)에서 형용사구 ‘生着’는 동사 ‘吃’의 방식을 가리키며, 예문(10)에서 형용사구 ‘緊着’는 동사 ‘用’의 방식을 가리킨다. 즉, 예문(8-10)에서 형용사구 ‘A着’는 모두 방식을 나타내며 동사구 ‘VP’의 부사어로 쓰인 관계로 이 예문들에서 ‘A着’와 ‘VP’는 수식관계를 이룬다. 따라서 이 예문들의 ‘A着VP’는 모두 수식식(偏正式)으로 간주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A着+VP’형식이 술목관계를 나타내는 경우를 보자. 이 경우 ‘VP’는 ‘A着’의 목적어로 간주된다. 즉 ‘VP’는 ‘A着’의 지배대상이라는 뜻이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 (11) 愛人看他負傷那樣重, 認爲他再不能幹甚麼了, 愁着日子沒法過。
 (아내는 그가 부상이 그렇게 심한 것을 보더니 그가 더 이상은 무엇도 할 수 없을 것이라고 여기고 살림을 꾸려나갈 수 없을까봐 걱정했다.)
- (12) 在北京安頓下來後, 我就開始忙着找工作。

(북경에 자리를 잡은 후 나는 일자리를 찾느라 바빴다.)

(13) 他的生活由不在身邊的養女所雇的保姆照顧，而保姆因工錢少整天鬧着離開。

(그의 생활은 곁에 없는 양딸이 고용한 보모가 돌보고 있었는데 보모는 월급이 적어서 매일 떠나겠다고 소란을 피웠다.)

예문(11)은 남편이 부상으로 일을 할 수 없게 되자 아내가 살림을 꾸려 나갈 수 없을 것을 걱정한다는 뜻을 나타내므로 이 문장에서 동사구 '日子沒法過'는 '愁着'의 내용이 된다. 따라서 이 문장에서 '愁着'는 문장의 서술어중심이 되고 '日子沒法過'는 '愁着'의 대상목적어⁹⁾가 된다. 반면, 예문(12)는 일자리를 찾기 위해 바쁘다는 뜻을 나타내므로¹⁰⁾ 형용사구인 '忙着'는 이 문장의 서술어중심이 되고 동사구 '找工作'는 '忙着'의 목적을 나타내는 목적어(目的賓語)가 된다. 예문(13)도 보모가 떠나겠다고 소란을 피우는 상황을 나타내므로 'VP'인 '離開'는 'A着'인 '鬧着'의 목적을 나타내는 목적어가 된다. 따라서 예문(11-13)에서 'A着VP'는 모두 술목적(述賓式)으로 간주해야 한다.

9) 본고에서는 목적어의 분류는 《漢語動詞用法詞典》의 분류를 따른다. 이 사전에서는 동사의 목적어를 施事賓語, 受事賓語, 結果賓語, 對象賓語, 工具賓語, 方式賓語, 處所賓語, 時間賓語, 原因賓語, 目的賓語, 致使賓語, 施事賓語, 同源賓語, 等同賓語 등 14가지로 나누었다. 孟琮 等, 《漢語動詞用法詞典》, 北京: 商務印書館, 2005(1999), 8-11쪽 참조.

10) 金忠實(1998), 張百領(2008)은 이 예문과 같은 경우 '爲~而忙'의 뜻을 나타내는 연동문으로 보았다. 金忠實, <“形容詞+着”格式的句法語義特點>, 《漢語學習》第3期, 1998, 21쪽과 張百領, <形容詞在“A着”結構中的句法語義特徵>, 《長春師範學院學報》第28卷第1期, 2009, 110쪽 참조. 그러나 본고는 이 예문에서 'VP'는 'A着'의 지배를 받는 것으로 보아 'VP'를 'A着'의 目的賓語로 본다. 왜냐하면 이 예문의 경우 'A着'와 'VP'가 원인관계를 나타내는 예문(5-7)의 경우처럼 'A着'와 'VP'의 문장에서의 통사적 지위가 동등하지 않기 때문이다.

2. 'A着O+VP'형식

'A着O+VP'형식은 통사상 동태조사 '着'을 수반한 형용사구 'A着'가 목적어를 취한 다음 다시 동사구와 결합한 형태이다. 이 형식은 'A着O'와 'VP'의 문장에서의 통사적 지위에 따라 'A着O+VP'형식은 연동관계와 수식관계를 나타내는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먼저 'A着O'와 'VP'가 연동관계를 나타내는 경우를 보도록 하자.

- (14) 花子癩着嘴向西房一嘸, 鼻子一哼, 意思說:他有個甚麼病呀?
(화즈는 입을 오므리고 서쪽 방을 가리키고는 콧방귀를 끼었다. 그 사람이 무슨 병이 있단 말인가 라는 뜻이었다.)
- (15) 金環接過包袱白着眼色說:“牽着不走打着走, 天生的不吃好糧食的東西!”
(진환은 보자기를 받고는 눈을 흘기며 말했다. “잡아끌 때는 안가고 때리면 가다니, 태생적으로 좋은 여물을 못 먹은 녀석이네!”)
- (16) 他粗着嗓子衝着孩子嚷了一句:“喂, 孩子們, 你們還在等甚麼呀? 還不快走!”
(그는 거친 목소리로 아이들을 향해 한마디 소리 질렀다. “저기, 애들아, 너희들 아직 뭘 기다리는 거야? 빨리 가지 않고!”)

예문(14)에서 '花子'는 입을 오므린 상태에서 그 입으로 서쪽 방을 가리킨 것이므로 이 문장은 'A着O'인 '癩着嘴'의 동작이 먼저 발생하고 그 동작의 수반상태에서 'VP'인 '向西房一嘸'의 동작이 발생했음을 나타낸다. 예문(15)의 경우, '金環'이 눈을 흘기는 동작을 수반하여 말하는 동작을 한 것으로 'A着O'인 '白着眼色'는 'VP'인 '說'의 수반동작을 나타낸다. 예문(16)의 경우 'VP'가 조금 복잡한 구조로 이루어졌지만 주어 '他'의 목소리를 거칠게 하는 행위가 아이들을 향해 한마디 소리를 지르는 동작을 수반하여 발생했음을 나타낸다. 따라서 예문(14-16)에서 'A着O'는 'VP'의 수반동작을 나타내며 서술어의 구성성분인 'A着O'와 'VP'는 하나의 주어를

공유하므로 모두 연동문을 이룬다. 따라서 이 예문들의 경우 모두 'A着 OVP'를 연동식(連動式)으로 간주해야 한다.

또한, 'A着O+VP'형식에서 'A着O'는 'VP'의 부사어로 쓰여 'A着O'와 'VP'는 수식관계를 나타내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17) 她耐着性子, **狠着心在和我賭氣**.

(그녀는 인내심을 갖고 모질게 마음먹고 나와 한판 하는 중이다.)

(18) 盡管干媽眼淚鼻涕抹了我一身, 我還是**硬着心腸走了**。

(비록 양어머니의 눈물과 콧물이 나의 온몸에 묻었지만, 나는 그래도 완강한 태도로 떠났다.)

(19) 丈夫只好**厚着臉皮回到家鄉**, 乞求妻子收留自己……

(남편은 어쩔 수 없이 뻔뻔스럽게 고향에 돌아와서 아내에게 자신을 받아달라고 빌었다.)

예문(17-19)에서의 'A着O'는 '狠着心', '硬着心腸', '厚着臉皮'로, 형용사구 뒤에 목적어를 가진 형태로 쓰였지만 모두 관용구로 각각 '모질다', '완강하다', '뻔뻔스럽다'의 의미를 나타낸다. 따라서 이러한 관용구는 후행하는 'VP'와 동등한 관계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VP하다'라는 뜻으로 쓰여 모두 'VP'를 수식한다. 따라서 예문(17-19)의 경우는 'A着O'가 'VP'의 부사어로 쓰인 것으로 'A着OVP'는 모두 수식식(偏正式)으로 보아야 한다.

이상에서 'A着'를 기준으로 'A着' 뒤에 명사성 목적어가 출현하는지 여부에 따라 'A着VP'구조를 'A着+VP'형식과 'A着O+VP'형식으로 나누고 구성 성분들의 통사적 지위와 내부 구성 성분들 간의 관계를 중심으로 'A着VP'구조를 분석하였는데 이를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표 1> ‘A着VP’구조의 유형

유형	형식	예문
연동식 (連動式)	‘A着+VP’	由於主管單位分配下來的項目不多, “僧多粥少”, 許多人 闲着沒活幹 。
	‘A着O+VP’	花子 癩着嘴向西房一撇 , 鼻子一哼, 意思說: 他有個甚麼病野呀?
수식식 (偏正式)	‘A着+VP’	湯勺通常 橫着擺放在餐盤上方 的。
	‘A着O+VP’	她耐着性子, 狠着心在和我賭氣 。
술목식 (述賓式)	‘A着+VP’	愛人看他負傷那樣重, 認爲他再不能幹甚麼了, 愁着日子沒法過 。

<표 1>를 통해 ‘A着VP’구조는 ‘A着’와 ‘VP’의 관계에 따라 연동식, 수식식, 술목식 등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는 것과 술목식의 경우 형용사구가 명사성 목적어를 수반하는 형식은 없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다.

Ⅲ. ‘A着VP’구조의 형용사

이 장에서는 ‘A着VP’구조에 출현하는 형용사를 살펴보고자 한다. ‘A着VP’구조에서 형용사는 동태조사 ‘着’를 수반한다.¹¹⁾ 鄭懷德, 孟慶海이 편집한 《漢語形容詞用法詞典》(2004)에서는 1,066개 형용사를 수록하고 있으나 ‘A着’ 용법을 열거한 것은 14개뿐이다.¹²⁾ 李泉(1994)은 1,230개 형용

11) 형용사가 동태조사를 수반하는 경우에 대한 논의는 많이 이루어졌는데 주로 동태조사를 수반한 경우 이 형용사를 동사로 볼 것인가 형용사로 볼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 집중되었고 어떤 형용사들이 동태조사를 수반하는지에 대해 집중되었다. 이 중 丁聲樹(1961), 李臨定(1990)은 동태조사를 수반한 형용사는 동사로 간주해야 한다는 주장이고, 王力(1944), 陸儉明(1994), 張先亮(1996), 王啓龍(2003)은 형용사가 동태조사를 수반하여도 형용사의 동태성은 인정되나 품사는 바뀌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형용사가 동태조사 ‘着’을 수반하여도 계속 형용사로 간주해야 하는지 동사로 간주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이 글의 주요 고찰대상이 아니므로 이 글에서는 논외로 한다.

사 중 15개 형용사에 대해서만 'A着' 용법을 열거하였다.¹³⁾ 郭銳(2002)는 72%의 형용사가 조사 '了' 혹은 '着, 過'를 가지지만 그 중에서 '着'을 가질 수 있는 형용사는 매우 적다고 했다. 그밖에 王啓龍(2003), 張國憲(2006) 등도 형용사가 동태조사 '着'를 수반하는 경우를 언급했으나 전체 형용사에 대한 정량분석은 하지 않았다.

현대 중국어에서 형용사가 목적어를 수반하는 경우도 있는데 많은 학자들의 주목을 받아왔고 연구도 많이 이루어진 편이다. 형용사가 목적어를 가지는 현상에 대해 비교적 깊이 있는 연구를 한 학자는 李泉(1994)인데, 그는 형용사의 목적어를 6가지 유형으로 나누어서 고찰했다.¹⁴⁾ 그에 따르면 1,230개의 성질형용사 중에서 170개가 목적어를 가진다. 王啓龍(2003)도 형용사가 목적어를 가지는 현상에 대해 정량분석을 했는데 그의 고찰에 따르면 2,098개 형용사 중에서 119개가 목적어를 가질 수 있다. 그러나 郭銳(2004)에 따르면 오직 10개의 형용사만이 진목적어를 가질 수 있다. 그러나 뒤에 수량을 나타내는 준목적어를 가져야 하며 일반적으로 비교나 출현을 나타낸다.¹⁵⁾ 郭銳가 정리한 형용사의 특징 제7항에 따르면 진목적어를 가지는 형용사는 10개 밖에 안 되므로 절대다수의 형용사는 목적어를 가질 수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상 대표적인 학자들의 연구 성과에서 보여주듯이 중국어에서 일부 형용사들은 목적어를 가진다. 따라서 형용사가 목적어를 가질 경우 형용사로 보아야 하는지 동사로 보

12) 低, 昂, 彎, 壯, 紅, 大, 光, 赤, 橫, 沈, 板, 鐵, 熱, 涼. 金忠實, <“形容詞+着”格式的句法語義特點>, 《漢語學習》第3期, 1998, 20쪽 참조.

13) 紅, 低, 光, 厚, 尖, 空, 豎, 歪, 彎, 斜, 陰, 硬, 壯, 啞, 直. 李泉, <現代漢語“形+賓”現象分析>, 《中國人民大學學報》第4期, 1994, 84쪽 참조.

14) 李泉은 형용사의 목적어 유형을 사동(使動)목적어, 의동(意動)목적어, 자동(自動)목적어, 대동(對動)목적어, 비교(比較)목적어, 존현(存現)목적어 등 6가지로 나누었다. 李泉, <現代漢語“形+賓”現象分析>, 《中國人民大學學報》第4期, 1994, 81~82쪽 참조.

15) 郭銳가 정리한 14가지 형용사의 기능과 특징 중에서 일곱 번째에 해당한다. 郭銳가 정리한 14가지 형용사의 기능과 특징은 郭銳, 《現代漢語詞類研究》, 商務印書館, 2004, 196-198쪽 참조.

아야 하는지 아니면 검류사¹⁶⁾로 보아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도 형용사의 목적어 수반 현상에 대한 연구와 함께 많은 논의가 있었다. 그러나 형용사가 목적어를 가질 경우 어떤 품사로 규정지어야 하는지, 어떤 형용사들이 목적어를 가지는지, 그 목적어의 유형은 어떻게 하위분류가 가능한지, 목적어를 가질 경우 형용사는 어떤 통사적 제약을 받는지 등은 본고의 주 고찰대상이 아니므로 이 글에서는 논의를 생략하기로 한다.

앞에서도 살펴보았지만 ‘A着VP’구조에서 동태조사 ‘着’을 수반한 ‘A着’는 목적어를 가지는 경우도 있다. 그렇다면 기존연구에서 동태조사 ‘着’를 수반하던 형용사들은 모두 ‘A着VP’구조에 출현가능한지 이 또한 검증이 필요하다. 이에 본고는 《現代漢語辭典》과 《漢語形容詞用法辭典》에 수록된 형용사들을 대상으로 ‘A着VP’구조에 출현하는지 여부를 北京大學語料庫(罔絡版), 中央研究院平衡語料庫 및 語料庫在線을 통해 고찰하였다. 그 결과 총 72개의 형용사가 ‘A着VP’구조에 출현할 수 있음을 확인했다. 먼저 ‘A着+VP’형식에 출현하는 형용사를 보자.

1. ‘A着+VP’형식에 출현하는 형용사

목적어는 수반하지 않고 동태조사 ‘着’만 수반하고 ‘A着VP’구조에 출현하는 것은 일음절 형용사들뿐이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 (20) 我們做完採訪已經是下午五點多了, 我們仍然沒有吃飯, 忙着去發稿.
 (우리가 취재를 끝냈을 때는 이미 오후 다섯 시가 넘었을 때였다. 우리는 여전히 밥을 먹지 못했고 원고를 발송하러 가느라 바빴다.)
- (21) 城裏的小青年還一撥一撥閑着無聊, 安排工作談何容易!
 (도시의 젊은이들이 한 무리 한 무리씩 한가해서 지루하게 지내고 있는데 일자리 안배라니 말이 쉽지!)

16) 현대중국어에서는 하나의 어휘가 두 가지 품사의 특징을 가질 경우 두 가지 품사를 겸하고 있다고 간주해 검류사(兼類詞)라고 부른다.

- (22) 樹林也荒着沒人看管, 一直到現在, 克利福才再雇了一個守獵的人。
 (숲은 관리하는 사람도 없이 황폐했고 줄곧 지금까지 이어졌었는데
 커리후가 이제야 다시 숲을 지키는 사람을 고용했다.)

위 예문들의 형용사 ‘忙’, ‘閑’, ‘荒’은 모두 일음절 성질형용사로 동태조사 ‘着’을 수반한 후 동사구와 결합한 경우이다. ‘A着+VP’ 형식에서는 이 음절 형용사가 관찰되지 않았다.

2. ‘A着O+VP’형식에 출현하는 형용사

‘A着VP’구조에서 동태조사 ‘着’을 수반한 ‘A着’가 목적어를 가지는 경우, 즉 ‘A着O+VP’형식에 출현하는 형용사를 고찰한 결과 일음절 형용사도 있고 이음절 형용사도 있었으나 대부분은 일음절 형용사였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 (23) 校長又僵着身子立起來, 用手擺弄着一管鉛筆。
 (교장이 또 뻣뻣하게 일어서서는 손으로 연필을 만지작거렸다.)
 (24) 她赤着腳走過奶黃色的地毯, 坐下來將杯子放在地面上。
 (그녀는 맨발로 우유 빛 카펫을 지나서 앉은 다음 잔을 바닥 위에 내려놓았다.)
 (25) 我們只好豎着耳朵聽屋裏的動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귀를 쫑긋 세우고 방안의 동정을 살폈다.)

예문(23-25)에 출현한 형용사는 ‘僵’, ‘赤’, ‘豎’는 모두 일음절 성질형용사로 동태조사 ‘着’를 수반할 수 있으며 목적어를 가질 수 있는 경우이다. 이밖에도 동태조사 ‘着’를 수반한 다음 목적어를 가진 후 ‘A着VP’구조에 출현하는 일음절 형용사들은 많은데 전부 성질형용사들이다.

다음은 동태조사 ‘着’을 수반하고 목적어를 가지며 ‘A着VP’구조에 출현하는 이음절 형용사들이다.

- (26) 丈夫回來陰沈着臉把一封信放到她的面前, 單是看支信封上那綠色的鉛印落款, 她的心就一陣狂跳。
 (남편은 돌아와서는 침울한 표정으로 편지봉투 하나를 그녀의 앞에 두었다. 편지봉투 위의 그 녹색의 낙관만 봐도 그녀의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다.)
- (27) 越說小伙子越不好意思, 竟緋紅着臉一轉身鑽回人群中去了。
 (말할수록 젊은이는 부끄러워했다. 의외로 얼굴이 새빨강게 되어서는 돌아서서 사람들 속으로 돌아가 버렸다.)
- (28) 龐文嗤一下鼻子, 側歪着頭朝孔江子噤裏咕嚕說了一陣。
 (龐원은 코웃음을 치고는 머리를 가우똥하고 쿵장즈를 향해 수군수군 한동안 얘기했다.)

예문(26-28)의 형용사는 각각 ‘陰沈’, ‘緋紅’, ‘側歪’로 모두 이음절 상태 형용사이다. 기존연구에서는 일음절 형용사만 ‘A着VP’구조에 출현하고 성절형용사만 출현한다고 보고 있으나 본고의 고찰에 따르면 위 예문들과 같이 소수의 이음절 상태형용사도 ‘A着VP’구조에 출현 가능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기할 것은 ‘A着VP’구조에 출현하는 형용사 목적어는 대부분 관형어의 수식을 받지 않는 원형 명사이지만 다음과 예문과 같이 수량구의 수식을 받는 경우가 확인되었다.

- (29) 鈞鈞常常苦着一張臉走出廁所, 不用問, 又拉肚子了。
 (귄귄은 자주 괴로움이 한가득한 얼굴을 하고 화장실을 나섰는데 물을 필요도 없다. 또 배탈이 난 것이니까.)
- (30) 可馨進屋, 一眼看見婆婆冷着一張臉坐在客廳的沙發上, 見她走進來, 斜着眼打量她。
 (커신은 방에 들어서자마자 한눈에 시어머니가 얼굴 한가득 차가운 표정을 하고 거실의 소파 위에 앉아있는 것을 보았다. 그녀가 들어오는 것을 보시고는 눈을 흘기며 그녀를 훑어보았다.)

위 예문에서 형용사 '苦着'와 '冷着'의 목적어로 '一張臉'이 출현했는데 여기서 '一張'은 '臉'을 세는 수량사가 아니라 '온 얼굴(滿臉)'의 뜻을 나타낸다. 비록 형용사가 동태조사 '着'을 수반할 경우 수량사구를 목적어로 가질 수는 있으나¹⁷⁾ 'A着VP'구조에 출현하는 데에는 제한이 따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본고는 위의 예문들에 출현한 형용사들을 포함하여 《現代漢語辭典》과 《漢語形容詞用法辭典》에 수록된 형용사들을 대상으로 'A着VP'구조에 출현하는지 여부를 北京大學語料庫(岡絡版), 中央研究院平衡語料庫 및 語料庫在線을 통해 고찰하였는데 총 72개의 형용사가 'A着VP'구조에 출현할 수 있음을 확인했다. 이 중 대부분이 일음절 성질형용사였고 소수가 이음절 상태형용사가 있었다. 이를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2> 'A着VP'형식의 형용사

형식	형용사	
'A着+VP'	일음절	吵 橫 荒 慌 急 擠 緊 忙 鬧 平 熱 生 豎 濫 勻 正
'A着O+VP'	일음절	白 扁 癟 沈 赤 粗 大 呆 低 鼓 光 黑 狠 紅 厚 黃 尖 僵 空 枯 苦 冷 亮 綠 麻 悶 木 偏 齊 青 鐵 禿 歪 彎 細 閑 斜 啞 陰 硬 直 壯 紫
	이음절	慘白 蒼白 側歪 緋紅 光禿 黑青 灰白 眯細 鐵青 歪斜 羞紅 陰沈 漲紫

주의해야 할 것은 <표 2>에서 고딕체로 표시한 형용사 '橫', '平', '豎', '正'은 그 의미항목에 따라 목적어를 수반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다. 다음 예문을 보자.

17) 張百領(2008), 周曉靜(2012)의 연구에 따르면 일부 형용사들은 동태조사 '着'을 수반할 경우 '空着一個房間(방 한 칸이 비어있다)', '家裏悶着一臺電腦(집에 컴퓨터 한 대가 놓고 있다.)'처럼 '수량사+명사'로 이루어진 수식구조를 목적어로 가질 수 있다.

- (31) a. 湯勺通常橫着擺放在餐盤上方的。(14번 예문임)
(국자는 일반적으로 쟁반 위에 가로 놓는다.)
b. 爲甚麼一定要橫着心吃可寶貴的竹筍呢?
(왜 꼭 마음을 다잡고 아주 소중한 죽순을 먹어야 하는가요?)
- (32) a. 現在臺灣寫信甚麼的還是豎着寫?
(지금 대만에서는 편지를 쓰거나 할 때 아직도 세로로 쓰나요?)
b. 我們只好豎着耳朵聽屋裏的動靜。(22번 예문임)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귀를 쫑긋 세우고 방안의 동정을 살폈다.)
- (33) a. 把箱子平着放在地上。
(상자를 (땅과) 평행되게 땅위에 놓으세요.)
b. 她從空中柔軟地平着身子落下, 沒有掙扎。
(그녀는 몸부림치지 않고 공중에서 부드럽게 몸을 평평하게 펴고 떨어졌다.)
- (34) a. 快樂和痛苦, 往往是事物的兩面, 你正着看是痛苦的。
(즐거움과 고통은 종종 사물의 양면이야. 네가 바르게만 보는 것은 고통스럽지.)
b. 當前世界製鞋業正着高技術、高質量、小批量、多款式的方向發展。
(현재 세계의 신발제조업은 높은 기술, 높은 품질, 작은 량, 많은 디자인의 방향을 향해 발전하고 있다.)

위 예문들에 출현한 형용사 ‘橫’, ‘豎’, ‘平’, ‘正’은 a문장에서는 목적어가 없이 ‘VP’의 방식을 나타내면서 부사어로 쓰였고, b문장에서는 목적어를 수반한 후 ‘VP’와 연동문을 이룬다. 따라서 이런 형용사들은 목적어의 수반 여부에 따라 ‘VP’의 관계가 달라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IV. ‘A着VP’구조의 동사구

金忠實(1998)는 ‘A着VP’구조의 동사구는 ‘동사+목적어’로 이루어졌으며 이 구조에 출현하는 동사는 구체적인 동작동사이며 부가성분이 있어야 한

다고 했다. 기타 'A着'를 연구한 학자들은 'A着VP'구조를 언급은 하였으나 이에 출현하는 동사구에 대해서는 별도의 언급이 없다.

따라서 이 장에서는 'A着VP'구조에 출현하는 동사구는 어떤 통사적 형식을 취하며 어떤 특징이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앞에서와 마찬가지로 형용사구의 목적어 출현여부에 따라 'A着VP'구조를 'A着+VP'형식과 'A着O+VP'형식으로 나누어 이 두 형식에 출현하는 동사구의 통사형식과 동사의 특징을 살펴보고자 한다.

1. 'A着+VP'형식의 동사구

'A着+VP'형식에 출현하는 동사구도 동사가 단독으로 쓰인 경우도 있고 기타 성분이 부가된 경우도 있는데 다양한 통사적 형식을 취하고 있다. 동사구의 통사형식 별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자.

1) 'A着+V'

이 형식은 형용사구 뒤에 출현하는 동사가 단독으로 출현하는 경우이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¹⁸⁾

- (4) 下星期一就要演出了, 咱们得**紧着练**。
 (9) 鴨肝也能**生着吃**?
 (10) 在穩增長的彈藥是充足的, 但必須**紧着用**。

예문(4, 9, 10)에서는 동사 '練', '吃', '用'이 단독으로 'A着VP'구조의 'VP'로 쓰였다. 이 동사들은 모두 동작동사로 자주성¹⁹⁾을 가졌고 사람을

18) 이하 앞에서 이미 제시된 예문일 경우 한글 해석을 생략하도록 한다.

19) 馬慶株(1988)는 동사를 자주동사와 비자주동사로 나누어 그 특징을 논한 바 있다. 자주동사는 통제 가능한 동작을 가리키는 동사이다. 자주동사와 비자주동사에 대한 논의는 馬慶株, <自主動詞和非自主動詞>, 《二十世紀現代漢語語法論文精選》, 商務印書館, 2005(1988), 224-245쪽 참조하기 바람.

묘사한다. 따라서 이 동사들은 [+사람 묘사(述人)], [+통제 가능(可控)]의 의미자질을 가진다.

2) ‘A着+VO’

이 형식은 형용사구 뒤에 출현하는 동사 뒤에 목적어가 출현하는 경우이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12) 在北京安頓下來後, 我就開始忙着找工作。

(35) 他急着籌措資金, 以增加治理投入。

(그는 통치에 필요한 투자를 늘리기 위해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서둘렀다.)

(36) 賺了錢萬事大吉, 虧了錢就鬧着找政府, 這樣的事在市場環境中在政府和群眾的共同努力下應該越來越少才對。

(돈을 벌면 만사대길이고 손해를 보면 정부를 찾아가 소란을 피우는 이러한 일은 시장 환경에서 정부와 군중들의 공동 노력 하에 점점 줄어들어야 맞는 것이다.)

예문(12)에서 동사 ‘找’는 ‘工作’를 대상목적어로 두었고, 예문(35)에서 동사 ‘籌措’는 ‘資金’을 대상목적어로 두었으며, 예문(36)에서 동사 ‘找’는 ‘政府’를 대상목적어로 두었다. 위 세 예문에 출현한 동사 ‘找’와 ‘籌措’ 역시 동작동사이다. 따라서 [+사람 묘사], [+통제 가능]의 의미자질을 가지고 있다.

3) ‘A着+PP+VP’

이 형식은 형용사구 뒤에 출현하는 동사 앞에 전치사구가 부사어로 출현하는 경우이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37) 聽說中國人來拍劇泰國老百姓緊着往家裏請。

(듣자하니 중국인들이 영화를 촬영하러 오면 태국 국민들은 잇달아

집으로 초대한다고 한다.)

(38) 他們只怕誤了日期, 天天急着往北赶路。

(그들은 오로지 날짜를 어길까봐 매일 서둘러 북쪽으로 길을 재촉했다.)

(39) 小孩子正在被改造成另一種人, 我急着把她搶救回來。

(아이들은 한창 다른 사람으로 개조되고 있어서 나는 서둘러서 그녀를 구조해서 돌아왔다.)

예문(37)에서는 전치사구 '往家裏'가 동사 '請'의 부사어로 출현했고, 예문(38)에서는 전치사구 '往北'이 동사 '赶路'의 부사어로 출현했으며, 예문(39)에서는 전치사구 '把她'가 동사구 '搶救回來'의 부사어로 출현했다. 이 세 문장에 쓰인 동사 '請', '赶路', '搶救'도 동작동사로 [+사람 묘사], [+통제 가능]의 의미자질을 가지고 있다.

4) 'A着+A+VP'

이 형식은 형용사구 뒤에 출현하는 동사 앞에 일반 부사어가 출현하는 경우이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40) 剛下手術臺, 蘭蘭就吵着堅決要回隊, 在場的醫生也深受感動。

(금방 수술대에서 내려온 란란은 단호하게 부대로 돌아가겠다고 떠들썩해서 현장에 있던 의사들도 깊게 감동 받았다.)

(41) 目前哪, 正有兩家船務公司急着要補充船員, 這是一個好機會啊!

(현재는 말이야, 마침 두 선사에서 급히 선원을 보충하려고 하고 있어. 이건 좋은 기회야!)

(42) 何必這麼痛苦, 整天吵着要進聯合國, 結果被人趕出來。

(이렇게 고통스러운 필요가 있겠어? 하루 종일 UN에 들어가겠다고 떠드니 결국 쫓겨나지.)

예문(40)에서는 형용사 '堅決'가 동사구 '要回隊'의 부사어로 쓰였고, 예문(41)과 예문(42)에서는 능원동사 '要'가 각각 동사구 '補充船員'과 '進聯

合國'의 부사어로 출현했다. 위 예문들에 출현한 동사 '回', '補充', '進'도 동작동사이다. 따라서 [+사람 묘사], [+통제 가능]의 의미자질을 가진다.

5) 'A着+V+C'

이 형식은 형용사구 뒤에 출현하는 동사 뒤에 전치사구보어나 방향보어가 출현하는 경우이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7) 馬威慌着跑出來, 還沒說話, 那個巡警向他一點頭。

(8) 湯勺通常橫着擺放在餐盤上方的。

(43) 兒子出生後, 一家三口就一直橫着擠在一張雙人床上。

(아들이 태어난 후 일가 세 식구는 좁은 2인용 침대에서 가로로 바짝 붙어 지냈다.)

예문(7, 8, 43)에서 'VP'는 모두 '동사+보어'구조로 이루어졌다. 구체적으로 예문(7)에는 방향동사 '出來'가 동사 '跑'의 보어로 출현했고, 예문(8)에서는 전치사구 '在餐盤上方'가 동사 '擺放'의 보어로 출현했으며, 예문(43)에서는 전치사구 '在一張雙人床上'가 동사 '擠'의 보어로 출현했다. 여기에 쓰인 동사 '跑', '擺放', '擠'도 모두 동작동사이다. 따라서 [+사람 묘사], [+통제 가능]의 의미자질을 가진다.

6) 'A着+V+V'

이 형식은 형용사구 뒤에 출현하는 동사구가 연동문으로 이루어진 경우이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44) 一個老農看見螞蟻在搬家了, 會忙着去田裏開溝, 他熟悉螞蟻搬家的意義。

(한 늙은 농부가 개미가 이사하는 것을 보면 밭에 가서 도랑을 내기에 바쁠 것이다. 그는 개미가 이사하는 의미를 잘 알기 때문이다.)

- (45) 他聽說你手摔傷了, 叫你不要慌着去上工, 今天給你記全工, 明天也給你記全工。
 (그 사람은 당신이 넘어져서 손을 다쳤다는 것을 알고는 허둥대며 작업하러 가지 말라고 합디다. 오늘은 전체 작업시간으로 기록해주겠다고 합디다. 내일도 전체 작업시간으로 기록해주겠습니다.)
- (46) 每當期日孩子們總要吵着讓父母帶他們到麥當勞快餐店去。
 (매번 일요일이 되면 아이들은 항상 부모에게 자신들을 맥도널드 패스트푸드점에 데려가 달라고 떠든다.)

예문(44)에서 'VP'는 밭에 가서 도랑을 낸다는 뜻을 나타내므로 '去田裏'와 '開溝'는 선후관계²⁰⁾를 나타내는 연동문을 이룬다. 예문(45)의 'VP'도 작업하러 가다라는 뜻을 나타내므로 '去'와 '上工'은 목적관계를 나타내는 연동문을 이룬다. 예문(46)에서 'VP'는 복잡한 구조를 이루고 있는데, 부모에게 그들을 데리고 맥도널드 패스트푸드점에 가게 했다는 뜻을 나타내므로 '讓父母帶他們'과 '到麥當勞快餐店去'는 선후관계를 나타내는 연동문을 이룬다. 이 세 예문에 쓰인 동사 '去', '開溝', '上工', '帶'도 모두 동작동사이다. 따라서 [+사람 묘사], [+통제 가능]의 의미자질을 가진다.

7) 'A着+V+O/S+V'

형이 형식은 형용사구 뒤에 출현하는 동사구가 겹어문으로 이루어진 경우인데 'A着VP'구조에서 특수한 형식이라고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 (22) 樹林也荒着沒人看管, 一直到現在, 克利福才再雇了一個守獵的人。
 (47) 平時資產在那裏閑着沒人過問。
 (평상시 재산은 그곳에 처박아두고 물어보는 사람이 없었다.)

20) 연동문에서 선 후행 연동항의 관계는 담화맥락에 따라 다르게 해석되는 경우도 있다. 이 예문의 경우 상황에 따라 목적관계로 해석되는 경우도 있다.

예문(22)의 ‘VP’에서 ‘人’은 ‘沒’의 목적어이자 ‘看管’의 주어이므로 ‘沒人看管’은 겹어문이 된다. 예문(47)에서 ‘人’은 동사 ‘沒’의 목적어이자 동사 ‘過問’의 주어이므로 ‘VP’인 ‘沒人過問’은 겹어문이 된다. 여기에서 동사 ‘沒’은 존현동사로 사람을 묘사하고 있지만 객관성을 가진 동사이므로 자주성은 가지고 있지 않다. 따라서 이 예문의 동사 ‘沒’은 [+사람 묘사], [-통제 가능]의 의미자질을 가진다. 반면, ‘看管’, ‘過問’은 동작동사이므로 [+사람 묘사], [+통제 가능]의 의미자질을 가진다.

2. ‘A着O+VP’형식의 동사구

‘A着O+VP’형식의 동사구도 동사가 단독으로 쓰인 경우도 있고 기타 성분이 부가된 경우도 있는 등 다양한 통사적 형식을 취하고 있다. 아래에서는 어떤 형식을 취하고 있는지 유형별로 구체적인 예문을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1) ‘A着O+V’

이 형식은 목적어를 수반하는 형용사구 뒤에 동사가 단독으로 출현하는 경우이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15) 金環接過包袱白着眼色說:“牽着不走打着走, 天生的不吃好糧食的東西!”

(18) 盡管干媽眼淚鼻涕抹了我一身, 我還是硬着心腸走了。

(48) 兒子出去轉了一圈空着手回來了。

(아들이 나가서 한 바퀴 돌고 왔으나 빈손으로 돌아왔다.)

예문(15)에서는 동사 ‘說’이 단독으로 출현했고, 예문(18, 48)에서는 동사 ‘走’, ‘回來’ 뒤에 동태조사 ‘了’가 출현했다. 여기서 출현한 동사는 ‘說’, ‘走’, ‘回來’는 모두 사람을 묘사하고 자주성을 가진 동사이다. 따라서 이

동사들은 [+사람 묘사], [+통제 가능]의 의미자질을 가진다.

2) 'A着O+VO'

이 형식은 목적어를 수반하는 형용사구 뒤에 출현하는 동사도 목적어를 가지는 경우이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25) 我們只好竖着耳朵聽屋裏的動靜。

(49) 二叔沒再爭, 黑着臉回了家, 坐在屋裏, 愣了半天神。

(둘째 숙부는 더 다투지 않고 흑빛이 된 얼굴로 집으로 돌아가서 방안에 앉아 한참 동안 얼이 나가있었다.)

(50) 我氣壞了, 漲紅了臉狠狠瞪了她一眼, 低着頭衝出了教室。

(나는 엄청 화가 나서 얼굴이 빨갱게 상기되어서 매섭게 그녀를 한번 노려본 후 고개를 숙이고 교실을 뛰쳐나갔다.)

예문(25)에서는 동사구가 방안의 인기척을 듣는다는 뜻을 나타내는데 동사 '聽'이 '屋裏的動靜'을 대상목적어로 가진 경우이고, 예문(49)에서는 동사구가 집으로 돌아가다는 뜻을 나타내므로 동사 '回'가 '家'를 장소목적어로 가진 경우이며, 예문(50)에서는 동사구가 교실을 뛰쳐나갔다는 뜻을 나타내므로 동사 '衝出'가 장소목적어 '教室'를 가지는 경우이다. 이 예문들에 출현한 동사 '聽', '回(家)', '衝出'은 모두 사람의 동작을 묘사하는 동사이다. 따라서 이 동사들은 [+사람 묘사], [+통제 가능]의 의미자질을 가진다.

3) 'A着O+PP+VP'

이 형식은 목적어를 수반하는 형용사구 뒤에 출현하는 동사가 전치사구로 된 부사어의 수식을 받는 경우이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2) 那個姓賴的挪了一下身子, 歪着頭朝我上下打量起來。

(14) 花子癩着嘴向西房一嘸, 鼻子一哼, 意思說:他有個甚麼病野呀?

- (16) 他粗着嗓子衝着孩子嚷了一句:“喂, 孩子們, 你們還在等甚麼呀? 還不快走!”

예문(2)에는 전치사구 ‘朝我’가 동사구 ‘上下打量起來’의 부사어로 쓰였고, 예문(14)에서는 전치사구 ‘向西房’이 동사구 ‘一颯’의 부사어로 쓰였으며, 예문(16)에서는 전치사구 ‘衝着孩子’가 동사구 ‘嚷了一句’의 부사어로 출현했다. 여기에 출현하는 동사 ‘打量’, ‘一颯’, ‘嚷’도 모두 사람의 동작을 묘사하는 동사로 [+사람 묘사], [+통제 가능]의 의미자질을 가진다.

4) ‘A着O+A+VP’

이 형식은 목적어를 수반하는 형용사구 뒤에 출현하는 동사가 일반 부사어의 수식을 받는 경우이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 (1) 李寧春當即氣憤地把錢還給他, 那位領導紅着臉慌忙離去.
- (51) 我第一次見到他時, 他正坐在校教室的第一排座位上, 歪着頭吃力地寫着字.
- (내가 그를 만났을 때 그는 한창 교실의 첫줄의 자리에 앉아서 머리를 갸우뚱하고 힘겹게 글자를 쓰고 있었다.)
- (52) 他看了許鳳一眼, 身子抖了一下, 歪斜着大嘴敵牙發狠地說: “真可惜, 我這一輩子沒有把你們殺光!”
- (그는 쉬훙을 한번 보고는 몸을 떨더니 커다란 입이 삐뚤름해서는 이를 악물고 노발대발하면서 말했다. “정말 아쉽다! 내가 이 생에서 너희들을 모두 죽이지 않았다는 것이.”)

예문(1)에서는 형용사 ‘慌忙’이 동사구 ‘離去’의 부사어로 출현했고, 예문(51)에서는 형용사 ‘吃力’가 구조조사 ‘地’와 함께 동사구 ‘寫着字’의 부사어로 출현했으며, 예문(52)에서는 연동문형식의 형용사구 ‘發狠’이 구조조사 ‘地’와 함께 동사 ‘說’의 부사어로 출현했다. 이 예문들에 출현한 동사 ‘離去’, ‘寫(字)’, ‘說’도 사람의 동작을 묘사하는 동사들이며 [+사람 묘

사], [+통제 가능]의 의미자질을 가진다.

5) 'A着O+V+C'

이 형식은 목적어를 수반하는 형용사구 뒤에 출현하는 동사 뒤에 또 전치사구보거나 방향보어가 출현하는 경우이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 (19) 丈夫只好厚着臉皮回到家鄉, 乞求妻子收留自己……
- (23) 校長又僵着身子立起來, 用手擺弄着一管鉛筆。
- (53) 青蛙啞着嗓子叫了半天, 烏龜才慢吞吞地爬了過來。
(청개구리가 목이 쉬도록 한나절이나 불렀는데 거부기는 그제야 느릿느릿 기어왔다.)

예문(19)에서는 동사 '回' 뒤에 전치사구 '到家鄉'가 보어로 출현했고, 예문(23)에서는 동사 '立' 뒤에 방향보어 '起來'가 출현했으며 예문(53)에서는 동사 '叫' 뒤에 시량보어 '半天'이 출현했다. 여기에 출현하는 동사 중에서 '回', '立'은 사람을 묘사하는 동작으로 [+사람 묘사], [+통제 가능]의 의미자질을 가지나, '叫'는 청개구리의 동작을 묘사하는 동사로 [-사람 묘사]²¹⁾, [+통제 가능]의 의미자질을 가진다.

6) 'A着O+V+V'

이 형식은 목적어를 수반하는 형용사구 뒤에 출현하는 동사구가 연동문으로 이루어진 경우이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 (54) 我只得硬着頭皮隨着班長朝集合場跑去。
(나는 어쩔 수 없이 엄치 불구하고 반장을 따라 집합장으로 달려갔다.)
- (55) 於是情感屈服, 我硬着心腸走到案前若無其事地照樣工作了。

21) 한편 이 예문은 청개구리를 의인화시켜 거부기를 부르는 상황을 묘사한 것으로 [+사람 묘사]의 의미자질을 가진다고 보아도 무방하다.

(그리하여 감정에 굴복하고 나는 모질게 마음먹고 작업대로 걸어와서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예전처럼 일을 했다.)

예문(54)에서 ‘VP’는 반장을 따라서 집합 장소를 향해 뛰어갔다는 뜻을 나타내는 연동문으로 여기서 ‘隨着班長’와 ‘朝集合場跑去’는 선후관계를 나타낸다. 예문(55)에서 ‘VP’는 작업대로 걸어와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예전처럼 일을 했다는 뜻을 나타내므로 여기에서 ‘走到案前’과 ‘若無其事地照樣工作’는 선후관계를 나타내는 연동문을 이룬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A着O+VP’형식의 ‘A着VP’구조에서 동사구는 다양한 통사적 형식을 취하나 대부분 동작동사로 [+사람 묘사], [+통제 가능]의 의미자질을 갖는다.

이 장에서 지금까지 ‘A着VP’구조의 동사구의 통사적 유형 및 동사의 의미적 특징을 ‘A着+VP’형식과 ‘A着O+VP’형식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는데, 이를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3> ‘A着VP’구조의 동사

‘A着O+VP’형식의 동사구	‘A着+VP’형식의 동사구
A着O+V	A着+V
A着O+VO	A着+VO
A着O+PP+VP	A着+PP+VP
A着O+A+VP	A着+A+VP
A着O+V+C	A着+V+C
A着O+VP+VP	A着+VP+VP
	A着+V+O/S+VP
대부분 동작동사 [+사람 묘사], [+통제 가능] 소수 존현동사, 동작성동사 [-사람 묘사], [+통제 가능]	

V. 나오며

본고는 'A着VP'구조가 실제 언어생활에서 자주 사용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연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A着VP'구조에 대한 통사 분석을 통해 'A着VP'구조의 유형, 'A着VP'구조에 출현하는 형용사 및 동사구에 대해 살펴보았다. 그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첫째, 'A着VP'구조는 연동문으로 간주되던 기존연구와는 달리 'A着'과 'VP'의 관계에 따라 연동식, 수식식, 술목식 등 세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둘째, 'A着VP'구조에 출현하는 형용사는 동태조사 '着'과 결합하여 목적어를 수반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 이 구조에 출현하는 형용사는 총 72개인데, 이중 일음절 형용사는 59개이고, 이음절 형용사는 13개이다. 또, 'A着VP'구조에는 대부분 성질형용사가 출현하나 상태형용사도 일부 출현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셋째, 'A着VP'구조에 출현하는 동사구 VP는 통사적으로 동사가 단독으로 쓰이거나 목적어를 수반하는 경우도 있고, 동사가 일반 부사어나 전치사구 부사어의 수식을 받는 경우도 있었다. 뿐만 아니라 보다 복잡한 형식도 출현하였는데 동사 뒤에 방향보어나 전치사구 보어가 출현하는 경우도 있었고, 연동문이나 겹어문의 형식이 출현하는 경우도 있었다. 또한, 'A着VP'구조에 출현하는 동사는 주로 [+사람 묘사], [+통제 가능]의 의미자질을 가지는 동작동사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References>

1. Ding Shengshu, *Modern Chinese grammar guide*, The Commercial

- Press, 2009(1961).
2. Gong Chen, *A Preliminary Study on the Structure of "Adjective + Aspect Particle"*, Shandong University Master's thesis, 2009.
 3. Guo Rui, *Modern Chinese lexical category research*, The Commercial Press, 2004.
 4. He Min, *A Research on Syntactic and Semantic Function of the Structure "A單+着(zhe)"*, Shanghai Normal University Master's thesis, 2009.
 5. Hu Fangfang, "Adjective + zhe" from the point of view of category transformation, *Journal of Jining Teachers' College*, Vol.27, No.3, 2006, 43–45.
 6. Jin Zhongshi, The Syntactic and Semantic Features of "Adjective + zhe" Structure, *Chinese Language Learning*, No.3, 1998, 20–21.
 7. Li Jinxi, *New Chinese grammar*, The Commercial Press, 2001 (1992).
 8. Li Linding, Serial-verb construction, *Chinese Studies*, No.2, 1981.
 9. Li Linding, A Study on Verb Classification, *Chinese language*, No.4, 1990.
 10. Li Quan, The analysis of the phenomenon of "Adjective + object" in modern Chinese, *Journal of Renmin University of China*, No.4, 1994, 78–86.
 11. Liu Yuehua, etc., *Practical modern Chinese grammar*, The Commercial Press, 2003(2001).
 12. Lu Jianming, Supplementary discussion about "zhe", *Chinese language*, No.5, 1999.
 13. Lǚ Shuxiang, *Slightly China grammar*, The Commercial Press, 1982.
 14. Lǚ Shuxiang, *Eight hundred words in modern Chinese*, The Commercial Press, 1999.

15. Ma Qingzhu, Volitional Verb and Nonvolitional Verb, *Ershi shiji Xiandai Hanyu Yufa lunwen Jingxuan*, The Commercial Press, 2005, 224–245.
16. Meng Zong, etc., *Dictionary of Chinese verb usage*, The Commercial Press, 2005(1999).
17. Shen Kaimu, Serial-verb and Belonging, *Chinese Language Learning*, No.5, 1986, 19–21.
18. Wang Li, *Chinese grammar theory*, The Commercial Press, 1944.
19. Wang Qilong, *Study on the measurement of adjectives in modern Chinese*, Beijing: Language and Culture University press, 2003.
20. Zhang Guoxian, *Study on the function and cognition of the adjective in modern Chinese*, The Commercial Press, 2006.
21. Zhang Bailing, “The Syntactic and Semantic Features of Adjectives in A+zhe Structure”, *Journal of Changchun Normal University*, Vol.28 No.1, 2009, 108–111.
22. Zhang Xianliang, Discussion of classification criteria of the adjective and verb, *Journal of Zhejiang Normal University*, No.5, 1996, 46–50.
23. Zhao Yuanren, *A Grammar of Spoken Chinese*, The Commercial Press, 2003.
24. Zheng Huaide, Meng Qinghai, *Dictionary of Chinese adjective usage*, The Commercial Press, 2004(2003).
25. Zhongguo shehui kexueyuan yuyan yanjiusuo cidian bianjishi, *Modern Chinese Dictionary(5)*, The Commercial Press, 2005 (1973).
26. Zhou Xiaojing, “The Syntactic and Semantic Features of “Adjective +zhe” Structure”, *Modern Chinese*, Vol. 7, 2012.
27. Zhu Dexi, *Grammar notes*, The Commercial Press, 2005(1982).

<참고문헌>

1. 丁聲樹, 《現代漢語語法講話》, 商務印書館, 2009(1961).
2. 龔晨, <“形容詞+動態助詞”結構初探>, 山東大學 碩士學位論文, 2009.
3. 郭銳, 《現代漢語詞類研究》, 商務印書館, 2004.
4. 賀民, 《“A單+着”結構句法語義功能研究》, 上海師範大學 碩士學位論文, 2009.
5. 胡方芳, <由範疇轉換看“形容詞+着”>, 《濟寧師範專科學校學報》 第27卷第3期. 2006, 43-45.
6. 金忠實, <“形容詞+着”格式的句法語義特點>, 《漢語學習》 第3期, 1998, 20-21.
7. 黎錦熙, 《新著國語文法》, 商務印書館, 2001(1992).
8. 李臨定, <連動句>, 《語文研究》 第2期, 1981.
9. 李臨定, <動詞分類研究說略>, 《中國語文》 第4期, 1990.
10. 李泉, <現代漢語“形+賓”現象分析>, 《中國人民大學學報》 第4期, 1994, 78-86.
11. 劉月華 等, 《實用現代漢語語法(增訂本)》, 商務印書館, 2003(2001).
12. 陸儉明, <“着(zhe)”字補議>, 《中國語文》, 1999(5).
13. 呂叔湘, 《中國文法要略》, 商務印書館, 1982.
14. 呂叔湘, 《現代漢語八百詞》, 商務印書館, 1999.
15. 馬慶株, <自主動詞和非自主動詞>, 《二十世紀現代漢語語法論文精選》, 商務印書館, 2005(1988), 224-245.
16. 孟琮 等, 《漢語動詞用法詞典》, 商務印書館, 2005(1999).
17. 沈開木, <連動及其歸屬>, 《漢語學習》 第5期, 1986, 19-21.
18. 王力, 《中國語法理論》, 商務印書館, 1944.
19. 王啓龍, 《形容詞計量研究》, 北京語言大學出版社, 2003.
20. 張國宪, 《現代漢語形容詞功能與認知研究》, 商務印書館, 2006.

21. 張百領, <形容詞在“A着”結構中的句法語義特征>, 《長春師範學院學報》第28卷第1期, 2009, 108-111.
22. 張先亮, <談談形容詞和動詞的划界標準>, 《浙江師大學報》第5期, 1996, 46-50.
23. 趙元任, 《漢語口語語法》, 商務印書館, 2005(1979).
24. 鄭懷德, 孟慶海, 《漢語形容詞用法詞典》, 商務印書館, 2004(2003).
25. 中國社會科學院語言研究所詞典編輯室, 《現代漢語詞典(第5版)》, 商務印書館, 2005(1973).
26. 周曉靜, <“A+着”結構的句法語義特徵>, 《現代語文》第7卷, 2012.
27. 朱德熙, 《語法講義》, 商務印書館, 2005(1982).

<Abstract>

In modern Chinese, some adjectives can accompany “着” a dynamic postposition, and the adjectival phrase “A着” can combine with a verbal phrase to make the “A着VP” structure. The “A着VP” structure is frequently used in actual linguistic discourse, but there have been almost no studies on it. This study aims to look into the types of the “A着VP” structure through analyzing the syntax of the structure and the adjectives and verbs appearing in the structure. According to this study, the “A着VP” structure can be divided into a connection, modification and predicate-object relation depending on the relationship between “A着” and “VP”. Most of the adjectives appearing in this structure are qualitative adjectives but some may be conditional adjectives. It was confirmed that action verbs with semantic features of [+human description] and [+controllable] mainly appeared.

Key Words : ‘A着VP’구조(“A着VP” structure), 연동식(connection),
수식식(modification), 술목식(predicate-object relation),
성질형용사(qualitative adjective), 상태형용사(conditional
adjective), 동작동사(action verb).